

일본근현대문학 수업 사례 연구*

-일본근대문학사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임 태 균**

(e-mail: yimtkje@sungkyul.ac.kr)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다매체 시대의 교과목 개발
 3. 일본근대문학사 수업 사례
 - 3-1.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방법
 - 3-2. 파워포인트의 활용 사례
 - 3-3. 만화 텍스트의 도입
 - 3-4.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수업방법
 4.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1Q84』 1,2권에 이어 3권도 역시 베스트셀러로 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있다. 이른바 하루키 현상이라 불리는 상징적인 현상에 힘입어 일본문학 붐 현상이 일어난 지 20여년이 되어간다. 2010년에는 일본 소설이 832종이나 번역 소개되었는데,¹⁾ 문학에 있어서 일류현상은 일본에서의 한류 대중문화 붐 못지않게 한국을 강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일본문학 교육의 현실은 바라볼 때 반드시 이러한 사회현상이 전공교육에서도 그대로 일치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성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성결대학교 일어일본학과 부교수. 일본근현대문학전공.

1) 대한출판문화협회 통계자료에 의함(<http://www.kpa21.or.kr/>). 본 협회 자료에 의하면 주요 국가별 번역 출판 현황에서 일본은 2위인 미국(496종)에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급변하는 멀티미디어 환경 속에서 문학 교육 역시 교수에게서 학생으로의 일방향적인 교육방식에만 의존하고 새로운 교육방법론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학습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점점 더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춘 문학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요즘이다.

정식적인 통계조사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일본어 관련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대다수는 전공을 선택한 이유로 J-POP, 드라마, 게임 등에 흥미를 느껴서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일본문학이 좋아서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공 학생들에게 일본근현대 문학을 과연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문제가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공통된 관심사이기도 하다.

특히 문학사와 같은 과목은 많은 작가와 작품, 문예사조가 쏟아져 나와 이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가르치는 입장이나 배우는 입장에서 모두가 다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지만, 필자가 재직하는 대학교의 일어일문학과에서는 일본문학사를 전공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이지만 문학사 수강을 원치 않는 학생들에게는 고역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학사는 일본문학 전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소설강독 등의 수업을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교과목인 까닭에 무시할 수 없는 과목이다. 따라서 교육의 방법론적 모색이 절실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문학과 관련한 교육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일본어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교육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현상이라고까지 할 만하다. 다행히도 최근에 위덕대의 이정희 교수²⁾를 중심으로 현장에서의 문학수업 교육방법론에 대한 발표와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문학방면에서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교육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4월 23일에 백석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일본문화학회 제39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국대학에 있어서의 일본문학교육’라는 주제 아래 미니심포지엄이 열려 4명의 발제자에 의한 실제수업사례가 발표되었다. 당시 필자도 미니심포지엄의 발제자로 참가하게 되었는데, 다른 발제자들의 발표를 통해 문학교육방법론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받았다. 또한 2011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에 걸쳐 계명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일본학연합회 제9회 국제학술대회에서도 ‘글로벌시대의 디지털자료 활용과 일본학 연구’라는 주제로 각 학문분야별로

2) 이정희(2010.8) 「다매체 시대의 일본문학 교육방법론」 『일본문화학보』 제46집, 한국일본문화학회
이정희(2011.2) 「일본문학 교육 방법Ⅱ-아베 고보의 『붉은 누에고치(赤い繭)』 읽기-」 『일본문화학보』 제48집, 한국일본문화학회 참조.

심포지엄과 학술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최근에 연구자들 사이에서 대학에서의 문학교육에 대한 방법론적인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성결대학교 일어일문학과 2학년 2학기 전공필수 과목으로 개설한 일본근대문학사 수업의 실제 사례 보고를 통해 보다 더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멀티미디어 교육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측면의 교육방법론에 역점을 두면서도 문학이라고 하는 교육대상이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서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측면에 호소하는 교육방법론과의 조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다매체 시대의 교과목 개발

어떤 교과목이건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날의 대학교육에서는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에 교육의 초점을 맞춰 학습자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보다 효율적인 교육방법론을 개발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서비스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이른바 ‘학습자 위주’의 수업방식을 기본골격으로 하여, 일본근대문학사 수업의 교육방법론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문학교육의 현재와 앞으로의 문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일본근대문학사의 실제 수업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필자가 소속한 대학의 학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본근대문학 관련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다. 2011년 현재, 발표자의 소속대학 일어일문학과에서 현재 개설 중인 일본근현대문학 관련 수업은 다음과 같다.

- 2학년 2학기- 일본근대문학사
- 3학년 2학기- 일본문학산책
- 4학년 1학기- 일본현대소설연습
- 4학년 2학기- 일본근대문학강독

각각의 교과목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먼저 일본근대문학사는 일본근대문학의 대표적인 문예사조와 대표작가 및 작품세계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일본근대문학의 전반적인 흐름과 특징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근대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수업이며, 일본문학산책은 다양한 장르의 일본문학을 접함으로써 중급수준의 일본어 표현을 익히고 일본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수업이다. 4학년에 개설된 일본현대소설연습은 최근에 발표된 일본 유명작가들의 소설을 읽고 감상함으로써 일본어의 다양한 표현을 배우고 독해력을 향상시키며 일본현대소설의 특징과 경향에 대해서 검토하는 수업이며, 일본근대문학강독은 명문을 중심으로 일본의 근현대문학을 감상하여 고급수준의 일본어 표현을 익히고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둔 수업이다. 일본근대문학사는 일본근대문학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그 밖의 강좌는 일본근현대문학 중에서도 소설을 중심으로 각 작가의 작품에 대한 소개와 감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대학교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강사들이 대학교 시절 전공수업을 통해 배웠던 텍스트는 이른바 작품성 있는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다매체학습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텍스트 선정 시 작품성이 있는 작품만을 고집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대중성 있는 작품도 어느 정도 다룰 필요가 있는데,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텍스트 선정 시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4학년 1학기에 개설된 일본현대소설연습 수업에서는 기발한 착상과 기상천외한 전개가 돋보이는 호시 신이치(星新一), 아카가와 지로(赤川次郎)의 쇼트 쇼트 스토리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한편 일본문학산책 수업에서는 최근에 영화화된 작품을, 일본근대문학강독 수업에서는 작품성 있는 작품을 다루되 다양한 매체로 제작된 작품을 다수 반영하고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하나의 매체로 발표되었던 것이 소설,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드라마, 음악, 영화, 캐릭터 상품 판매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전개되는 이른바 미디어 믹스, 즉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라고 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소설의 경우도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개설 교과목 중 개별적인 작품의 감상과 이해를 목표로 한 수업들의 경우, 학생들의 흥미유발을 위해 영화나 드라마 등으로 제작된 소설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선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문학산책 수업에서는 가타야마 교이치(片山恭一)의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世界の中心で、愛をさけぶ)』, 이치카와 다쿠지(市川拓司)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いま、会いにゆきます)』,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ノルウェイの森)』 등의 작품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일본근대문학강독 수업에서는 이즈미 교카(泉鏡花)의 「고야히지리(高野聖)」,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과계(破戒)』,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열흘 밤의 꿈(夢十夜)」,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비용의 처(ヴィヨンの妻)」 등을 작품 본문과 해설을 엮은 줄거 『일본 근·현대소설의 이해와 감

상』(제이앤씨)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다매체 시대를 맞이한 요즘, 영화나 드라마, 만화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문학교육의 방법론을 모색해야 하며, 교과목 역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개발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일본근대문학사 수업 사례

3-1.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방법

일본근대문학사는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공필수 과목이기는 하지만, 낯선 외국문예사조와 더불어 생소한 작가와 작품 등이 계속 이어지고, 많은 문학사적인 현상과 내용들을 단기간 내에 학습하게 되는 관계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매우 큰 과목이다. 따라서 강의 내용을 학습자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습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교과목은 학습자로 하여금 일본 근대문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까닭에 작가 개인과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다는 난점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개의 작가와 작품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문학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일본문학사와 같이 많은 작품들을 다루어야 하는 수업은 자칫 수박겉핥기식의 수업이 될 위험성도 있고, 또 수많은 작품명 등을 외워야 하는 관계로 학생들의 집중도도 떨어지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수업 운영상의 난점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소설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의 예고편이나 다이제스트판,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해 근현대문학 관련 자료를 접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4년에 후지TV에서 방송된 「문학이라고 하는 것 스페셜(文学ト云フ事スペシャル)」이라는 프로그램은 일본 문학작품을 하나씩 들면서 작품의 영화 예고편을 모방한 영상작품을 방송하고 ‘문학 예고인’이 그 작품에 대해서 상세히 해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유튜브(YouTube)’(<http://www.youtube.com>)나 ‘니코니코 동영상(ニコニコ動画)’(<http://www.nicovideo.jp>) 등을 통해 이러한 영상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영상작품은 1편당 약 2~3분 내외로 이루어져 있어 짧은

시간 내에 작품의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데, 주요작품의 줄거리를 영상과 더불어 소개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수업에서 활용한 영상은 후타바테 시메(二葉亭四迷)의 『뜬 구름(浮雲)』,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의 『이불(蒲団)』, 나쓰메 소세키의 『산시로(三四郎)』,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기러기(雁)』, 다사이 오사무의 『사양(斜陽)』 『인간실격(人間失格)』 등이다.

특히 ‘니코니코 동영상’의 경우는 다른 동영상 커뮤니티 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인 동영상에 직접 코멘트를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이를 수업 시간 중에 이용해 볼 수도 있다. 이 때 학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코멘트를 올려보는 것도 수업의 흥미를 유발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외에도 동영상 서비스의 활용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작가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나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류(村上龍) 등의 인터뷰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작가의 육성을 직접 접한다는 것은 작가와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 특히 미시마 유키오의 경우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와의 대담, 각종 연설을 담은 영상 등을 통해 달변가로서의 그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 근현대문학과 관련된 스페셜 프로를 활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각종 TV프로그램 속에서 일본문학관련 스페셜 방송을 제작하여 방영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예를 들어 이즈미 교카는 외식은 절대로 하지 않았으며, 선물 받은 과자를 알코올램프로 구워 먹거나 술도 팔팔 끓여 마셨을 뿐만 아니라, ‘두부(豆腐)’라는 한자에 포함된 ‘腐’라는 글자마저 꺼려 자신의 작품에는 ‘豆府’라고 쓸 정도로 지독한 결벽증 환자였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러한 것을 화제로 삼은 스페셜 프로그램을 ‘유튜브’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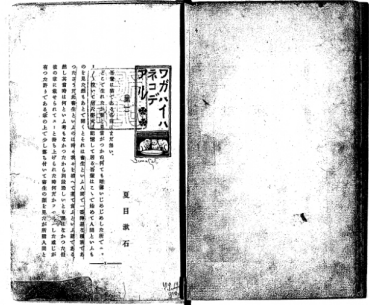
한편 낭독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본은 직업성우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자원봉사자들이 유명작가들의 소설 낭독 mp3 파일을 각종 사



<자료1> ‘니코니코動画’ 사이트

3) 1995년 12월 29일, 기타노 다케시(北野武)와 아카시야 산마(明石家さんま)의 사회에 의한 니혼TV의 ‘世界超偉人伝説’에서 이즈미 교카의 결벽증을 화제로 삼은 스페셜 프로를 방영한 바 있다.

이트와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다.⁴⁾ 성우가 낭독해주는 자료를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집중력을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소설의 경우는 교재에 실린 인용문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치겠지만, 시의 경우는 학습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자료2> 국립국회도서관 소장도서

영상과 음성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화상 자료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국립국회도서관의 근대 디지털 라이브러리 사이트

(<http://kindai.ndl.go.jp/>)에서는 출판 당시 판본을 디지털 화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메이지, 다이쇼, 쇼와시대 간행도서의 디지털 화상을 일반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도서 약 57만권을 수록중이고 이중 인터넷 제공수는 약 24만권에 이르고 있다. 컬러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출판당시의 판본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 작가의 육성을 수록한 CD나 테이프, 혹은 성우에 의한 작품 낭독CD나 테이프 자료 등을 교과목 담당자가 소장하고 있는 경우는 그들 자료를 적극 사용할 만하다. 하지만 인터넷의 하이퍼링크 기능 등에서 볼 수 있는 작업의 편의성과 자료의 방대성 등을 바탕으로 파워포인트 자료 등을 통해 보다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3-2. 파워포인트의 활용 사례

본 문학사수업에서는 수업자료를 파워포인트로 정리하여 주교재⁵⁾와 병행하여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 때 파워포인트 자료를 학생들에게 배부하는데, 인쇄된 자료에 모든 내용이 실려 있으면 자칫 집중력을 잃을 수도 있는지라 중요한 사항 등은 괄호 속에 알맞은 말을 써넣도록 함으로써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고전주의를 전개해 나간 겐유샤(硯友社)에 대한 설명에서는,

4) <http://epuron-rodoku.seesaa.net/>
<http://www.koetaba.net/3book/index.html>
<http://www.voiceblog.jp/ted606/>
<http://www.voiceblog.jp/hitoha/>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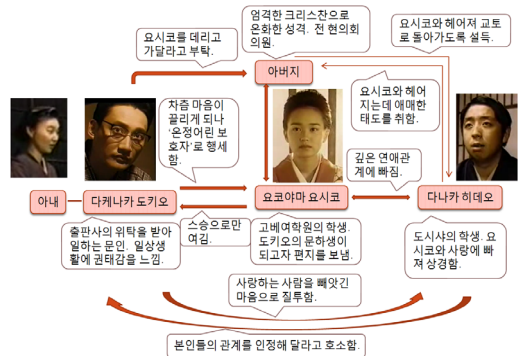
5) 이일숙·임태균 공저(2009) 『신개정판 포인트일본문학사』 제이앤씨.

()는 1885년에 오자키 고요(尾崎紅葉), 야마다 비묘(山田美妙) 등이 결성한 일본최초의 문학결사이다. 기관지 「잡동사니문고(我楽多文庫)」를 발간하였으며 가와카미 비잔(川上眉山),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 이즈미 교카(泉鏡花) 등이 참가하여 메이지 20년대 문단의 주류가 되었다.

와 같이 괄호 넣기 방식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수업 중에 필기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내용 파악을 위해 인물관계도를 작성하여 수업에서 활용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배가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인물관계도는 <자료36>이나 <자료 47>와 같이 『이 한 책으로 이해하는 일본의 명작(この一冊でわかる日本の名作)』(青春出版社)과 같은 해설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 원서를 그대로 수업도중에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본 강좌의 주요 수강대상자가 2학년인 점을 고려하여 내용 파악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인물관계도의 문구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때 대상 작품이 앞서 언급한 「문학이라고 하는 것 스페셜」 등의 영상물에 있는 경우는 등장인물들의 얼굴을 캡처하여 인물관계도에 반영시킴으로써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주요작품의 줄거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우선 인물관계도로 1차적으로 설명을 한 뒤 ‘유튜브’ 등에 실린 동영상을 보며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줄거리를 설명하는 순서에 맞춰 문구나 사진 등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사용자 지정 애니메이션’의 ‘나타내기’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슬라이드 쇼 진행시 내용 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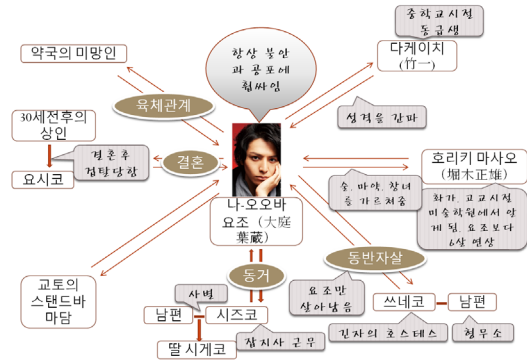


<자료3> 다야마 가타이 『이분』 인물관계도

파워포인트 제작 시에는 영상자료 뿐만 아니라 음향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자키 고요의 『금색야차(金色夜叉)』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아타미(熱海) 해변에서 간이치(貫一)가 미야(宮)의 변심을 알고 그녀를 걷어차는 장면의 삽화를 슬라이드 쇼로 보여주면서 고토 시운(後藤紫雲)과 미야지마 이쿠요시(宮島郁芳), 두 명의 엔카시(演歌師)가 다이쇼 7년(1918)에 작사·작곡한 ‘금색야차의 노래(金色夜叉の歌)’를 BGM으로 들려주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정취를 느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6) 木と読書の会編(2010) 『この一冊でわかる日本の名作』 青春出版社. p.75 를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
7) 위의 책 p.19 를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

그 외에도 수업을 마치기 직전에 슬라이드 쇼 형식으로 그날의 주요 학습내용을 문제풀이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배가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다. 수업시간에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정답을 함께 생각하고 맞혀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자료4> 다자이 오사무 『인간실격』 인물관계도

1. 다음 중 일본최초의 언문일치 근대소설을 고르시오.
 - 1)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 『당세서생기질(当世書生氣質)』
 - 2)후타바테 시메(二葉亭四迷) 『뜬 구름(浮雲)』
 - 3)모리 오가이(森鷗外) 「무희(舞姫)」
 - 4)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 「키 채기(たけくらべ)」

2. 다음 중 오자키 고요(尾崎紅葉)와 더불어 메이지 20년대를 풍미했던 고타 로한(幸田露伴)의 대표작으로, 성격과 처지가 다른 두 명의 목수의 대립과 갈등, 예술의 위대함을 그린 작품을 고르시오.
 - 1) 「두 비구니의 참회(二人比丘尼色懺悔)」
 - 2) 「오층탑(五重塔)」
 - 3) 「다정다한(多情多恨)」
 - 4) 「염세시인과 여성(厭世詩家と女性)」

3. 다음 중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모리 오가이(森鷗外)가 메이지23년(1890)에 발표한 낭만주의의 대표작은?
 - 1) 「십삼야(十三夜)」
 - 2) 『금색야차(金色夜叉)』
 - 3) 「무희(舞姫)」
 - 4) 『다키구치 뉴도(滝口入道)』

4. 다음 중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초기 대표작으로, 고아근성으로 굴절되었던 주인공의 마음이 치유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은?
 - 1) 『천 마리 학(千羽鶴)』
 - 2) 「잠자는 미녀(眠れる美女)」
 - 3) 『설국(雪国)』
 - 4) 「이즈의 무희(伊豆の踊子)」

물론 수업자료를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기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까닭에 수업준비 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한번 작업을 해두면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활용할 수 있고, 또 해를 거듭해가면서 수정작업을 거침으로써 보다 더 원활한 수업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3-3. 만화 텍스트의 도입

일본은 만화 대국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만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일본 출판물 중에서 만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게 높다. 2006년에 출판된 만화 단행본만 무려 10,965종에 이르고, 만화와 만화잡지 판매부수는 동년에 판매된 출판물 전체의 36.7%에 이른다고 하는 통계수치를 보더라도 만화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⁸⁾

문학작품 역시 만화로 재생산되는 일이 흔히 있는데, 활자에만 의존하는 소설과 비교하여 만화의 경우는 다의적 표현 특성으로 인해 학습효과가 우수하며, 시각적인 측면에서 독자에게 호소하는 바가 크다. 물론 만화로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원작 본연의 모습이 다소 훼손될 수는 있겠지만, 만화의 교육적 효과가 소설의 그것보다 훨씬 구체적임은 부인할 수 없다. 적어도 일본의 만화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매체가 수업의 흥미유발을 위해서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일본 근대문학 관련 만화는 빈번히 간행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명작문학안내(日本の名作文学案内)』(集英社)는 일본근대문학사 수업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교재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나쓰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吾輩は猫である)』(1905)로부터 나카가미 겐지(中上健次)의 『岬(岬)』(1975)에 이르기까지 메이지시대로부터 쇼와시대에 걸친 일본 근현대소설의 대표작을 만화를 중심으로 소개한 책인데, 작가 및 줄거리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각 소설의 내용을 2,3페이지 분량의 짧은 만화 형식으로 요약함으로써 해당 작가와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단, 2학년 수준에는 다소 어려운 어휘가 나오는 관계로 미리 다음 주 진행할 분량을 예고하여 학생들이 예습해 오도록 지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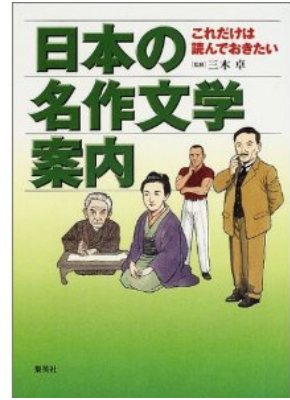
수업진행은 먼저 일본어로 된 작품의 줄거리와 만화 속 대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역할분담을 하여 읽어보도록 한 뒤 작품에 대한 주변 지식이나 작가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수업시간에 다루지 못한 작품에 대해서는 만화 대사 번역을 과제로 제출하기도 한다.

8) 『2007出版指標年報』全国出版協会・出版科学研究所、2007年 참조.

한편 1991년에 발간된 <문예만화 시리즈(文芸まんがシリーズ)>(ぎょうせい, 전 30권)는 메이지시대로부터 쇼와시대에 걸쳐 발표된 작품들 중 소위 걸작으로 평가받는 작품들을 선별하여 수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를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다. 수업에서는 본 만화의 주요장면을 스캔하여 파워포인트자료 속에 포함시켜서 소설의 줄거리를 소개할 때 보조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본 시리즈 작품은 장면 하나하나가 마치 원작을 실제로 읽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원작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작의 문장과 스토리 전개, 심리묘사 등의 면에서 충실하게 재현해 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어려운 한자에는 요미가나가 달려 있고 난해한 용어에는 각주로 친절할 설명을 곁들이고 있어 나이 어린 학생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로 일본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더없이 훌륭한 일본문학 안내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작품들 중에서 특히 인기가 있었던 작품 15권이 선별되어 2010년에 신장판으로 새롭게 발간되었다. 이 중 그동안 문학사 수업에서 활용해 온 작품의 리스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히구치 이치요—『키 재기(たけくらべ)』
- 이즈미 교카—『고야산 스님(高野聖)⁹⁾』
- 나쓰메 소세키—『도련님(坊っちゃん)』 『산시로(三四郎)』
- 모리 오가이—『산초대부·다카세부네(山椒大夫·高瀬舟)』
-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두자춘·라쇼몬(杜子春·羅生門)』 『지옥변·봉교인의 죽음(地獄変·奉教人の死)』
- 다자이 오사무—『달려라 메로스·후지산 백경(走れメロス·富嶽百景)』
- 가와바타 야스나리—『이즈의 무희(伊豆の踊り子)』



<자료5> 『日本の名作文学案内』



<자료6> <文芸まんがシリーズ>

9) 이즈미 교카, 임태균 역(2010) 『고야산 스님·초롱불 노래』 문학동네 참조. 그동안 이 작품은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야성’ 또는 ‘고야히지리’ 등으로 불려져 왔으나, 작품의 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운 관계로 국내 독자들에게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고야산 스님’이라고 번역하였음을 알려둔다.

특히 이 시리즈 중에서도 이즈미 교카의 『고야산 스님』의 경우는 교카 특유의 난해한 문장을 만화를 통해 알기 쉽게 잘 풀어냄으로써 원작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작품이라 여겨진다. 행각승 슈초(宗朝)가 도야마(富山)의 약장수의 뒤를 쫓아 험한 옛길을 따라가다가 뱀을 만나는 장면이나, 숲속에서 산거머리때의 습격을 받고 자신의 몸에 착 달라붙은 산거머리들을 뜯어내며 숲을 빠져나오는 장면, 그리고 하룻밤을 묵어가게 된 산속 외딴 오두막집에서 그 집주위를 에워싼 온갖 짐승들의 기척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공포에 휩싸여 염불을 외는 장면 등은 원작의 느낌을 실감나게 잘 표현해 내고 있다.

또한 최근 발간된 이스트 프레스(イースト・プレス)의 <만화로 독파(まんがで読破)>시리즈는 일본국내외의 유명작품의 만화요약본으로 문학사 수업에서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단, 문장 하나하나에도 최대한 원작의 느낌을 살린 <문예만화 시리즈>에 비해서 이 <만화로 독파>시리즈는 만화적인 재미는 더한 반면 문장은 만화가의 자유로운 해석에 맡겨져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만화를 수업에 도입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료7> <まんがで読破>시리즈

수업시간에 활용할 만한 주요 작품의 리스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모리 오가이—『무희(舞姫)』
- 나쓰메 소세키—『나는 고양이로소이다(吾輩は猫である)』 『마음(こころ)』
- 시마자키 도손—『과계(破戒)』
-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라쇼몬(羅生門)』
- 다자이 오사무—『사양(斜陽)』 『인간실격(人間失格)』
- 미야자와 겐지(宮沢賢治)—『은하철도의 밤(銀河鉄道の夜)』

만화 텍스트가 지니는 장점은 원작에 대한 빠른 이해와 더불어 주요 장면에 대한 이미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점 외에도 만화 대사가 지니는 일본어 교육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매체로서의 만화 텍스트의 이용가치가 인정된다.

3-4.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수업방법

필자의 일본근대문학사 수업에서는 이러한 방법 외에도 복각본이나 문학관

런 복제품 자료 등을 학생들이 돌려가며 볼 수 있도록 제시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수업방법도 시도하고 있다. 문학사 수업이 자칫 지식 전달의 수업으로 그치게 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문학이 지니는 감성적인 면을 수업시간에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문학관에서 간행된 『명저복각전집(名著復刻全集)』(近代文学館) 시리즈는 1970년부터 간행이 이루어져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일본의 고서점 등을 통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복각본을 제시하는 방법은 학생으로 하여금 당시에 발표된 판본 형태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일본문학을 더욱 가깝게 느끼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감성적 또는 정서적 교육방법론의 한 시도가 될 수 있다.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보던 당시 판본을 복각본의 형태로 직접 만나보는 것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 제공한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자료8>

『小説神髓』 복각본(近代文学館刊)

실제로 쓰보우치 쇼요의 『당세서생기질(当世書生氣質)』의 컬러풀한 삽화나 같은 작가에 의한 『소설신수(小説神髓)』, 후타바테 시메의 『뜬 구름(浮雲)』, 시마자키 도손의 『과계(破戒)』 등 문학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는 저작들의 복각본을 학생들에게 보여줄 때는 교실 곳곳에서 탄성이 터지곤 한다. 특히 나쓰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吾輩は猫である)』나 기타하라 하쿠슈(北原白秋)의 『사종문(邪宗門)』 등의 뛰어난 장정과 삽화 등을 당시의 판본과 동일한 복각본을 통해 직접 접해본다는 것은 학생들의 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중에서도 1984년에 간행된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의 『순킨쇼(春琴抄)』 『문신(刺青)』 복각본 특선세트에는 다니자키가 평소 애용하던 특제 페이퍼나이프 겸용 문진의 복제품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작가의 향기를 느끼게 해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일본이 캐릭터 상품을 잘 만들어내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문학작품과 관련하여서도 이처럼 다양한 상품이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자료9> 다니자키 준이치로가 애용하던 특제 페이퍼 나이프 겸용 문진의 복제품

이처럼 작가나 작품세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실물 모형은 직접적 학습경험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입체적 시각자료로서 그 학습효과는 매우

크다고 본다.

그 밖에 수업시간에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실물 모형에는 ‘후미에(踏み絵)’가 있다. 예전에 학생들을 인솔하여 나가사키 소재 자매대학에 단기연수를 갔을 당시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복제품인데, 문학사 수업시간 중에 학생들에게 돌려보도록 하면 무척 신기해하며 반응이 좋아 구입한 가격 그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하고 있다. 문학사 첫 수업시간에 일본의 근대로의 이행 과정을 설명하는 도중에 가톨릭의 전파와 박해에 대해서 가르칠 때나 엔도 슈사쿠(遠藤周作)의 『침묵(沈黙)』 등에 대해서 소개할 때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운문문학에 대한 학습이 마쳐질 무렵에는 일본의 근현대시를 암송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다카무라 고타로(高村光太郎)의 「도정(道程)」이나 하기와라 사쿠타로(萩原朔太郎)의 「대나무(竹)」 등의 시 암송을 성적에 일부 반영함으로써 학습자가 수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시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낭독사이트를 통해 전문성우의 낭독을 미리 들어보고 반복해서 따라 읽게 함으로써 해당 시를 충분히 음미하고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한편 한국어 하이쿠(俳句) 짓기를 과제로 내 학생들이 직접 창작의 주체가 되어보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문학사 수업은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업인지라 일본어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한국어로 하이쿠를 짓도록 지시한다. 실제로 학생들이 직접 지은 한국어 하이쿠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달 밝은 밤에 / 모락모락 지어낸 / 고구마 몇 개

눈 녹을 때쯤 / 내 마음의 얼음도 / 녹아내릴까

낙하산 꽃씨 / 파란 봄을 적시는 / 새하얀 꽃비

한국하이쿠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일본어하이쿠대회와 한국어하이쿠대회가 올해로 각각 제15회와 제6회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꾸준한 참가가 이어지고 있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정형시인 하이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대회가 존재하는 사실을 수업시간에 알려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매체의 활용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측면의 접근과 더불어 문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의 접근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수업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4. 나오는 말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일본근대문학사 수업에 나타난 멀티미디어 활용 사례를 비롯하여 교육방법의 다양한 시도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오늘날과 같이 멀티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수업방법론의 개발은 필요불가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일본근현대문학 수업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수업에서 실제로 시도해 보지는 않았지만,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페이스북(Facebook)을 수업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전세계 페이스북 가입자 수는 약 7억 명, 국내 가입자 수도 약 37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¹⁰⁾ 페이스북 서비스를 교육현장에서 활용하게 된다면 교실 안팎에서ダイナ믹한 수업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수업은 교수-학생 간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와 더불어 교실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들며 동시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스마트폰 열풍을 고려해 볼 때, 수업을 진행하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게 유도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으로 다양한 교육방법의 장이 열리게 된 셈이다. 스마트폰 사용 인구 2000만 시대를 맞이한 지금, 앞으로 일본근현대문학과 관련한 각종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도 점쳐진다.

최근 일고 있는 갤럭시탭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PC 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기술문명의 이기가 앞으로 점점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고 볼 때, 이러한 멀티미디어 학습 환경의 구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교수와 학습자가 동시에 수업에 참여하는 멀티미디어 수업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학습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작품에 대한 정확한 해석, 작품 배경에 대한 설명 등 철저한 수업준비가 우선 시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기술문명의 이기를 최대한 활용하되, 문학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자기조명이 함께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문학교육과 미디어와의 관계에 대한 교육자와 학습자 간의 가치체계 정립도 문제시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학과 미디어의 관계를 종속 혹은 병치의 관계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채 인식하지 못

10) <http://www.ugn.kr/coding/view.asp?seq=43492> 참조.

하고 있는 문화적 현상을 교육의 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형상화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언어로 생산해 내도록 유도하는 상생의 관계로 바라보는 좀 더 적극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参考文献】

- 데이비드 버킹엄, 기선정·김아미 역(1994) 『미디어 교육』 JN Book
이일숙·임태균(2009) 『신개정판 포인트 일본문학사』 제이앤씨
임태균(2010) 『일본 근·현대소설의 이해와 감상』 제이앤씨
김희선(2010.12) 「교수법에 있어서 페이스북 활용사례(1)」 (성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논총』 제15집 1권)
이정희(2009.10) 「일본문학 교육방법론 I -문학 교육의 의의를 중심으로-」 (국제언어문화학회 『국제어문학』 제20호)
이정희(2010.8) 「다매체 시대의 일본문학 교육방법론」 (한국일본문화학회 『일본문화학보』 제46집)
이정희(2011.2) 「일본문학 교육 방법Ⅱ-아베 고보의 『붉은 누에고치(赤い繭)』 읽기-」 (한국일본문화학회 『일본문화학보』 제48집)
정재찬(2009.4) 「미디어 시대의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한국문학교육학회
황보영식(2010.12) 「교수법에 있어서 페이스북 활용사례(2)」 (성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논총』 제15집 1권)

要 旨

本稿は、筆者の大学に専攻必須科目として開設されている〈日本近代文学史〉科目の実際の授業事例を報告し、より効果的な教授法について考察することを研究目的とする。特に学習者の視点に立ち、特にマルチメディア教育という技術的な面での教授法に利点を置きながら、学習者の感性に訴える教授法との調和について探りたい。

具体的な授業事例においては、まず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した授業方法について紹介した。〈YouTube〉や〈ニコニコ動画〉などの動画共有サイトを通して、文学作品の映画の予告編を模した映像作品を紹介し、作品の理解に役立たせている。またインターネットを通して作家の肉声や声優による朗読資料を聴くことにより、作家や作品に対する関心を高める。

本授業ではパワーポイントを使って人物関係図を作成し、学生に提供している。授業が終わる前にその日の学習内容を穴埋め、あるいは四択クイズ形式の問題を解くことによって確かめる。

それから作品の理解を助けるために、小説の漫画本も授業で使う。文学作品を原作とする漫画本は数多くあるが、中でも原作の文章、ストーリーの展開、心理描写などにおいて、できるだけ原作にそった内容の作品を選んで授業で紹介する。

その他にも感性に訴える教育の一環として復刻版や作家の愛用品の複製などを学習者に提示したり、学習者自らが詩の暗唱や俳句の創作を試みたりすることにより、文学を体験できる授業になるように心掛けている。

これからの文学授業では、マルチメディアの積極的な導入とともに文学本来の特性を生かした教育方法が必要になってくると思う。

キーワード：学習者、教授法、日本近代文学史、マルチメディア、インターネット、
パワーポイント、漫画本、感性

투 고 : 2011. 8. 31
1차 심사 : 2011. 9. 10
2차 심사 : 2011. 10. 1